

2012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2월 CBSI 10.2p 상승한 68.9 기록

- 전월 기저효과 및 계절적 요인 영향 상승, 지수 자체는 여전히 부진 -

- 2012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0.2p 상승한 68.9를 기록
 - CBSI는 지난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11.9p 하락), 전월인 11월에는 58.7을 기록해 2010년 8월의 50.1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었음.
 - 그러나, 12월 들어 CBSI는 지난 9월의 11.6p 상승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침체수준이 다소 개선됨.
 - 이는 전월인 11월 CBSI가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연말인 12월에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CBSI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해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은 아직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3.3p 하락한 65.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2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월에는 통상 공공공사 발주 감소를 비롯해 흑한기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 영향으로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3년 1월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CBSI가 전월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들의 지수가 전월비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4.3p 상승한 92.9를 기록하며 CBSI 상승을 주도했고, 3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도 전월비 8.4p 상승해 64.0을 기록함.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5월 초 품립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몇몇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과 다수 업체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계속 70선을 밑돌았는데, 12월에도 70선을 넘지 못함.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비 7.4p 상승한 46.3을 기록함. 그러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9, 88.7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4, 82.5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2.0, 79.7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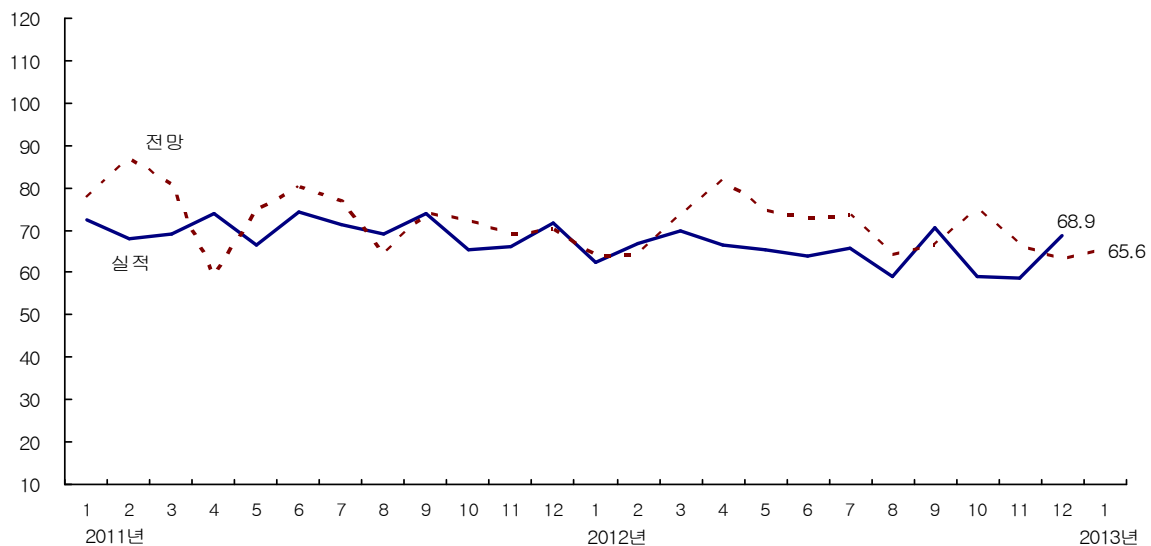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2월 CBSI 10.2p 상승한 68.9 기록

- 2012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0.2p 상승한 68.9를 기록함.
 - － CBSI는 지난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11.9p 하락), 전월인 11월에는 58.7을 기록해 2010년 8월의 50.1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었음.
 - － 그러나, 12월 들어 CBSI는 지난 9월의 11.6p 상승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침체수준이 다소 개선됨.
 - － 이는 전월인 11월 CBSI가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연말인 12월에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 － 그러나, CBSI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해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은 아직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들의 지수가 전월비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4.3p 상승한 92.9를 기록하며 CBSI 상승을 주도했고, 3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도 전월비 8.4p 상승해 64.0을 기록함.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5월 초 품립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몇몇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과 다수 업체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계속 70선을 밑돌았는데, 12월에도 70선을 넘지 못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7.4p 상승한 46.3을 기록함. 그러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6.7	69.9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3.0	65.6
규모별	대형	92.9	85.7	71.4	92.3	92.9	80.0	91.7	76.9	78.6	92.9	71.4	78.6
	중견	58.3	68.0	72.0	58.3	50.0	46.2	61.5	57.7	55.6	64.0	64.0	62.5
	중소	45.6	53.4	54.1	41.8	45.6	44.8	49.1	39.3	38.9	46.3	51.9	53.8
지역별	서울	81.4	74.7	74.1	74.9	72.1	79.4	63.8	80.5	69.9	69.6	79.3	69.3
	지방	46.5	62.5	54.9	53.6	51.0	45.2	51.6	56.5	43.2	42.5	52.1	59.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3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3.3p 하락한 65.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12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월에는 통상 공공공사 발주 감소를 비롯해 흑한기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 영향으로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3년 1월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CBSI가 전월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1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업체 모두 전월 대비 각각 9.7p,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69.9, 69.6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음. 12월에 9.7p 상승한 79.3을 기록하면서 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80선에 근접함.
 -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11월에 2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38.9로 매우 부진하였는데 12월에 다시 전월 대비 9.6p 증가, 52.1을 기록함. 다만, 9월 지수가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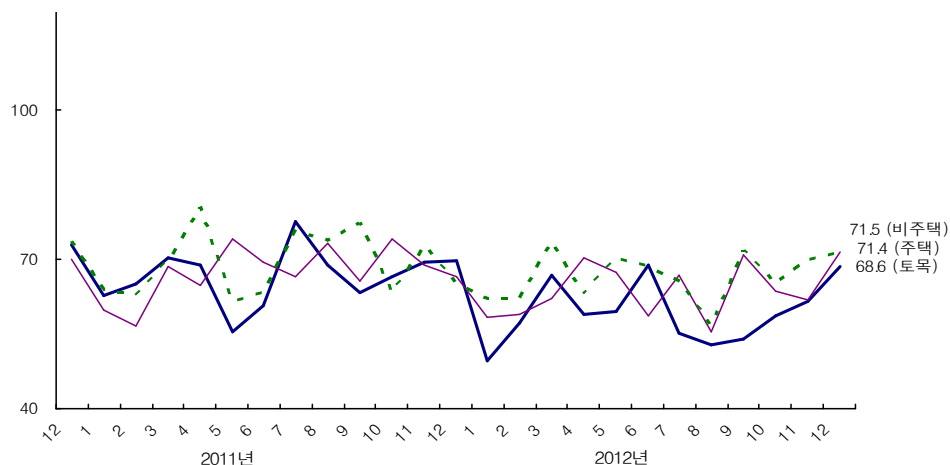
였던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1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12월보다 10.0p 감소한 69.3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은 7.3p 증가한 59.4로 전망함.

12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12.6p 증가한 74.4기록

- 1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2.6p 증가한 74.4를 기록, 지수가 개선됨.
 - 물량지수는 지난 8월에 52.6을 기록한 이후, 9~11월 각각 62.9, 61.8, 61.8을 기록, 3개월 연속 60선 초반에 머물며 부진하였음.
 - 특히 11월 지수는 연말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달리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10월과 동일한 61.8로 정체됨.
 - 그러나, 12월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2.6p 증가한 74.4를 기록하면서 지난 6월 72.7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통상 12월에 연말 밀어내기 물량의 영향으로 지수가 2~5p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올 12월은 상승폭이 10p 이상으로 다소 이례적임.
 - 하반기 부진했던 공공공사의 잔여물량이 12월에 일시적으로 발주되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수가 여전히 70선 초반에 불과해 물량상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여겨짐.
- 공종별로 전 공종이 전월대비 증가함. 주택이 전월보다 9.5p 증가해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토목이과 비주택도 각각 7.1p, 1.6p 증가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전월 대비 7.2p, 1.6p 하락함. 12월에 들어서 9.5p 상승해 올들어 가장 높은 71.4를 기록, 3개월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비주택 물량 지수는 지난 11월에 전월보다 4.9p 상승한 이후 12월에도 1.6p 상승해 공중별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인 71.5를 기록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4.6p, 2.9p 상승해 5개월 만에 60선인 61.5를 기록한 이후 12월에도 7.1p 상승,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해 70선에 근접한 68.6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과 중견, 중소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2p 증가한 92.9를 기록, 5개월 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비주택 물량지수가 107.1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토목과 주택도 각각 85.7을 기록해 양호했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8.5p 증가한 80.0으로 1년 1개월 만에 80선을 기록함.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4.0, 61.5로 각각 전월보다 1.4p, 10.5p하락한 반면, 주택이 전월보다 28.2p나 상승한 87.5로 양호했음.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지난 11월 34.0으로 9개월 만에 30선을 기록하며 매우 부진하였는데 12월에 전월 대비 12.3p 상승한 46.3을 기록, 다시 반등함. 다만 전월대비 상승하였어도 지수가 40선 중반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주택이 36.2로 공중별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41.2, 토목이 53.7을 각각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4.4	92.9	80.0	46.3	83.8	59.3
	전망	63.6	78.6	58.3	51.9	69.3	54.3
토목	실적	68.6	85.7	64.0	53.7	79.0	52.6
	전망	62.8	71.4	65.2	50.0	66.7	56.4
주택	실적	71.4	85.7	87.5	36.2	78.8	60.5
	전망	57.8	71.4	58.3	41.3	65.2	45.4
비주택	실적	71.5	107.1	61.5	41.2	85.7	48.7
	전망	62.5	78.6	62.5	43.8	69.3	51.2

주 : 실적은 2012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3년 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13.1p 상승한 83.8을 기록해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지방업체도 전월보다 10.4p 상승한 59.3으로 개선됨.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3.1p 상승한 83.8을 기록함. 주택이 11.4p 증가한 78.8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음. 다음으로 토목이 9.0p 증가한 79.0, 비주택이 5.3p 증가한 85.7을 각각 기록함.
 -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10.4p 상승한 59.3을 기록함.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5.9p 감소한 48.7로 부진하였으나, 토목과 주택 모두 전월보다 각각 3.7p, 7.0p 증가한 52.6, 60.5를 기록, 소폭 개선됨.
 - － 다만, 서울업체에 비해 상승폭이 낮고 지수가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지방업체의 물량상황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2월 실적치보다 10.8p 하락한 63.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 통상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넘어가면서 연말 잔여물량 소진의 영향으로 물량지수가 10~15p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
 - － 2013년 1월 공사물량지수 하락폭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평년과 비슷한 하락폭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수가 60선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2.8, 62.5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택 물량지수가 57.8로 공종별로는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9, 88.7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4, 82.5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2.0, 79.7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2.0	100.0	69.2	75.5	84.4	77.5
		전망	76.0	92.9	60.0	74.5	77.0	75.5
	자금조달	실적	79.7	100.0	69.2	67.9	86.6	68.5
		전망	79.5	100.0	68.0	68.6	82.5	75.6
인력	수급	실적	94.9	92.9	103.8	87.0	97.7	90.0
		전망	93.1	92.9	96.0	90.0	95.3	88.9
	인건비	실적	88.4	92.9	100.0	69.8	95.0	77.7
		전망	89.3	92.9	100.0	73.1	94.1	81.8
자재	수급	실적	88.7	92.9	96.2	75.5	95.5	79.6
		전망	90.8	92.9	96.0	82.4	95.3	84.8
	비용	실적	82.5	92.3	88.5	64.2	89.3	71.6
		전망	82.1	92.3	88.0	63.5	88.1	72.6

주 : 실적은 2012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3년 1월 예측지수임.

끝.